

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REGIONAL ANALYSIS · FAR EAST · CIS

극동·CIS 물류 현황 분석

보고기간 08/24~08/30

1. 바쿠-트빌리시-카르스 철도 재개통을 통한 카스피해 횡단 물류 확대

LOGISIGHT 인텔리전스팀

2026-W35

종합

이번 주 극동 권역에서는 바쿠-트빌리시-카르스 철도의 조지아 구간 현대화 완료로 카스피해 횡단 물류 경로의 용량이 대폭 확대되는 흐름이 두드러졌다. 이는 카스피해 횡단 국제운송로의 병목 구간을 해소하고 중앙아시아와 유럽 간 화물 운송의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진전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통으로 화물 처리 능력이 기존 대비 다섯 배로 늘어나면서,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 지형에서 중간 회랑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러시아를 우회하는 대체 운송로의 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역내 교역 다변화가 촉진되고, 향후 카스피해 연안국들의 물류 허브화 경쟁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바쿠-트빌리시-카르스 철도 재개통을 통한 카스피해 횡단 물류 확대

바쿠-트빌리시-카르스(BTK) 철도의 조지아 구간 현대화 완료로 화물 처리 능력이 5배 확대되어, 카스피해 횡단 국제운송로(TITR)의 용량 제약이 해소되고 중앙아시아-유럽 간 화물 흐름이 증가할 전망이다.

2024년 6월 2일 BTK 철도가 조지아 구간 현대화를 마치고 재개통됨. 아제르바이잔철도(ADY)가 조지아 내 184km 구간에서 2023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공사를 진행한 결과, 연간 화물 수송 능력이 기존 100만 톤에서 500만 톤으로 5배 증가함. 이 노선은 중국-중앙아시아와 캅카스-튀르키예-유럽을 연결하는 미들 코리더의 핵심 축으로, 카스피해를 건너는 카자흐스탄발 화물의 유럽행 경로를 제공함.

이번 용량 확대는 그동안 미들 코리더의 병목으로 지적되던 조지아 구간의 노후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선한 결과임. 13개 역, 55개 교량, 8개 견인 변전소, 320개 건물이 정비되고, 30.3km의 신규 선로와 윤축 교환 시설이 추가됨. 이로 인해 철도 수송의 정시성과 안정성이 향상되고, 해상 운송 대비 짧은 리드타임을 요구하는 화물의 대안 경로로 기능할 가능성이 커짐.

카자흐스탄은 BTK 철도 재개통을 자국의 환적 잠재력 강화 기회로 보고 있음. 카자흐스탄 교통부는 이 노선이 자국발 화물의 유럽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카스피해 횡단 운송 경로의 선택지를 넓혀 국제 환적 물동량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특히 대러시아 제재로 인해 북부 코리더 이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중앙아시아 화물이 미들 코리더로 우회하는 흐름이 가속화될 수 있음.

다만, 철도 용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카스피해 해상 구간의 선박 부족과 항만 처리 능력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음. 또한, 해상 운임 대비 높은 철도 운임과 국경 통관 절차의 복잡성 등이 미들 코리더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적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개통은 유라시아 물류망의 다변화 요구에 부응하여,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된 기존 경로의 대안으로서 미들 코리더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BTK 철도 연간 화물 처리 능력이 100만 톤에서 500만 톤으로 5배 증가함.
- 조지아 구간 184km에 대한 현대화 공사가 2023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진행됨.
- 신규 선로 30.3km 건설, 윤축 교환 시설 신설, 13개 역·55개 교량 정비 등이 이루어짐.
- 카자흐스탄 교통부는 BTK 재개통이 자국 환적 물동량 증가와 유럽 시장 접근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미들 코리더는 북부 코리더(러시아 경유)의 대체 경로로 부상하고 있으며, BTK는 그 핵심 구간임.

전망

BTK 철도 재개통으로 미들 코리더의 철도 구간 용량 제약이 크게 완화되어, 단기적으로는 중앙아시아발 유럽행 화물의 철도 이용이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카스피해 횡단 해상 구간의 선박 부족과 항만 처리 지연이 여전히 전체 리드타임을 좌우할 수 있어, 통합 물류 서비스 개발이 관건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상-철도 복합운송의 효율성이 개선되면 미들 코리더가 유라시아 물류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시사점

화주 — 북부 코리더 대체 경로의 신뢰성이 높아짐에 따라 유럽행 화물의 경로 다변화 옵션이 확대되며, 리드타임과 운임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를 확보함.

포워더 — BTK 철도 용량 확대로 미들 코리더 기반 복합운송 상품 개발이 용이해지고, 고객 수요에 맞춘 유연한 운송 솔루션 제공이 가능해짐.

항만·선사 — 카스피해 횡단 구간의 선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구간에 투입되는 선박의 확충과 항만 처리 능력 개선이 필요함.

카자흐스탄 정부 — BTK 철도를 활용한 환적 화물 유치를 위해 철도-항만 연계 인프라와 통관 절차 간소화 등 물류 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Transport Corridors, 카자흐, 바쿠-트빌리시-카르스 철도 개통...연간 환적 500만톤 확대 · Transport Corridors, 바쿠-트빌리시-카르스 철도 재개통...화물 용량 5배 확대 (검색일: 2026-08-30)